

## 큰 힘을 얻었다고 하시며

2014년 11월 어느날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종목마다에 당정책이 맥박치고 공장애가 차넘치며 사상성, 예술성은 물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공연이라는데 대하여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본것도 기쁘지만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공장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보게 된것이 더욱 기쁘다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배심이 든든해졌으며 큰 힘을 얻었다고,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

정녕 이 부름속에는 일편단심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기적과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이 응축되어 있었다.

온 우주를 통채로 받아안은것만 같은 격정에 휩싸여 일군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우리 로동계급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역세계 키우는 삶의 자양분입니다.)